



『이까짓 거!』 독서 활동지

학년 반 이름:

1

표지 그림을 보고 비 오는 날 있었던 나의 이야기를
떠오르는 대로 적어보세요.



예시)

- 수학여행 날 비가 와서 아쉬웠어요.
- 비오는 날 웅덩이를 밟아서 신발이 젖어서 짜증났어요.
- 우리 아파트에서는 비 오는 날 달팽이를 볼 수 있어요.
- 비 오는 날 먹는 부침개가 맛있어요.



『이까짓 거!』 독서 활동지

학년 반 이름:

2

비 오는 날, 우산이 없었던 기억이 있나요?
작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
이야기해봅시다.

YouTube

검색



[이야기꽃 그림책] 이까짓 거!

<https://youtu.be/cU4AsFBYl90?si=WuhFaubhlMvoYVP>

비가 온다. 우산이 없다.
나라면???



『이까짓 거!』 독서 활동지

학년 반 이름:

3

‘이까짓’은 ‘겨우 이만한 정도의’라는 뜻이 있어요.
때론 용기가 나게 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.
그림책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빈칸에 ‘이까짓’을 적어보세요.

이까짓 일은 눈 감고도 할 수 있다.

이까짓 일로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.

 일로 화를 내다니!

 거 하나도 필요 없다.

 흥터야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지.

나는 일로 친구와 다투고 싶은
마음은 없다.



『이까짓 거!』 독서 활동지

학년 반 이름:

4

주인공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나만의 색깔을 칠해 보세요.

“애, 우산 없니? 같이 갈래?”

“괜찮아요!”





『이까짓 거!』 독서 활동지

학년 반 이름:

5

아래 그림의 친구가 책 속에 4번 등장합니다. 어디에 있을까요?
아래 그림 속 친구를 주인공으로 『이까짓 거!』 2탄의 작가가 되어봅시다. 제목을 정하고 표지를 만들어보세요.



이어질 이야기도 상상해보고 발표해보세요.